

# 외국인을 위한 한국한자 교육 연구

정 훈(전주대)

## 〈목 차〉

1. 한국한자 교육의 필요성
2.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교육 현황
3. 독서지도를 통한 한자교수법의 예
4. 맺음말

## 1. 한국한자 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문자표현의 도구로서 한자(漢字)를 사용하였다. 삼국시대의 역사서는 물론이고, 조선시대의 왕조실록을 비롯하여 개인문집에 이르기까지 한자와 한문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는 도구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한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글쓰기 도구로 사용되었다. 당시 중국의 선진 지식과 문물에 대한 조선사회의 동경과 학습 욕구는 조선시대 지배층의 학문과 정치 사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고, 한자와 한문 습득은 지배계급의 권위와 교양을 드러내는 기초 단계로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 되었다. 한문 능력 구미자가 곧 엘리트 문화의 주체라는 인식은 오늘날까지 정치·경제·철학·사상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의 의식 저변에 자리잡았다. 그 결과 고유어나 쉬운 우

리말조차 한자어나 난해한 한자로 바꿔 쓰는 문자사대주의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 이후, 우리 사회는 한글전용을 해야 하는지, 국한문 혼용 혹은 한자병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70년대에는 한글전용 정책, 75년도에는 국한문병용 정책,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다시 한글전용이 시행되었다. 한글전용은 표면적으로 교육, 언론, 출판 등 각계에 파급되어 현재 모든 출판물의 형태는 한글전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자는 한글이 창제되기 전부터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표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한글이 창제된 뒤에도 한글과 더불어 우리의 문자 체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한국어 어휘의 약 57%가 순수 한자어이며, 한자어와 고유어, 한자어와 외래어, 한자어와 고유어·한자어가 혼합된 것까지 합하면 한자가 포함된 한자 어휘는 69.1%에 달한다.<sup>1)</sup> 그런 수적인 비중에도 불구하고 한자는 글자 수가 너무 많고 쓰기 복잡해서 학습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모화사상에 젖은 사대주의자들의 유물이라는 냉소를 견뎌야 했다. 정부 당국은 모든 공문서와 언론지 등을 한글전용으로 바꾸고, 교육 현장에서 한문 과목을 아예 폐지하는 등 우리말에서 한자를 사장시키는 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처럼 혹독한 비판과 냉대를 받았던 한자가 그 표의(表意)적 특성으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고풍한 문자였던 한자를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생활능력의 저하를 들 수 있다. 한글 속에는 한자어가 대략 70%를 차지한다. 한자를 알지 못하고서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는 곧 글을 읽고 이해하고 요약 정리하는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의 부재를 초래할 뿐 아니라 어휘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둘째, 도구과목(한자) 교육 부실로 타교과에 대한 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

1) 우리말에서 한자 어휘가 차지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60~85%까지 다양한 주장이 있다. 우리말은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한자어는 단음절 한자어와 다음절 한자어로 구분된다. 한자어가 고유어와 외래어 등과 결합하는 경우, 이 어휘를 한자어로 분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한자 어휘량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다. 도구교과라고 할 수 있는 영어, 수학, 국어 과목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과목의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자 역시 어휘를 담당하는 도구 과목으로서 어휘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할 경우, 학업성취도에서 저조한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다.

셋째, 고등교육 과정에서 전공도서를 읽을 때 독해력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학술용어나 전공 관련어 등의 전문 어휘는 대부분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를 익히면서 접하게 되는 신문, 잡지, 간판, 각종 고지서 등에 나타나는 생활한자어에서부터 전공서적, 학술지 등 고급 수준의 한자에 이르기까지 한자어 학습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위의 주장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으로서 고급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한다면 한국인처럼 한자어를 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는 원활한 언어생활을 위한 기초이며, 기초단계에서부터 고급학문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점진적으로 습득되어야만 한다. 한자는 대부분 고급어휘, 학문어휘 등 어휘력과 관계가 깊다. 이 때문에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한자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동안 발간된 한국어교재는 주로 회화를 통한 의사전달에만 치중하는 초보적 단계에 집중해왔다. 이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대상이 주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여한대였진적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 이 경우 한국어로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을 빨리 익히고 산업재는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급 수준의 한국어 습득이 필요치 않았다. 결혼이주민 여성들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먼저 결혼생활이 우선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어를 배워서 대학진학 등을 목표로 하는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보다 고급스러운 지식을 습득하고,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일상어휘를 떠나서 학문어휘, 전공어휘, 시사어휘 등을 학습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고급수준의 어휘들은 많은 단어들인 한자어와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대학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에서 한자교육을 별도

---

2) 전통문화연구회, 『전통문화회보』 1998, 12 내용요약.

의 과목으로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는 기관은 드물다.<sup>3)</sup> 다만, 고급반에서 고사 성어를 한국어의 한 단원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한자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를 익히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 한국한자어를 쉽게 재미있게 배우면서 효율적으로 한자어를 습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 2.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교육 현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실제적인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한글전용이 실시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한자를 몰라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초기에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주로 일자리를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이 많았다. 이들에게는 학문적 어휘보다는 실생활 한국어가 필요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생활한국어가 보급되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생활한국어와 문화어가 중심이 되었다. 한국의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시댁 생활, 농촌생활, 육아 등과 관련된 문화를 강조한 한국어가 유행하였다.<sup>4)</sup> 최근에는 학문 및 전문 직업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을 중심으로 학문목적 한국어와 직업 목적 한국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고난이도의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한자어에 대한 교육 및 교육방법론이 증대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을 위한 한자교육이 등한시된 이유는 비한자문화권 외국인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한자를 알고 있는 한자문화권 외국인에게는 한자교육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두 가지로 귀결된다. 그러나 교육의 필요성이 뚜렷하고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며 그에 따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외국인에 대한 한자교육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도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한다.<sup>5)</sup>

3) 이영희(2008)의 논문에 따르면 현재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선문대, 연세대에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반이 개설되었다고 한다.

4) 전미순, 『문화속 한국어1, 2』, Korea Language Plus, 2008. 외 참고문헌 참조.

외국인을 위한 한국한자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6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1. 한자교수법에 대한 논의
2. 한자 교육을 위한 교재 구성 및 편찬
3. 교육용 한자 및 한자어 선정에 대한 논의
4. 한자어 교육에 대한 현황 및 요구도에 대한 논의
5. 한자 및 한자어 학습전략에 대한 논의
6. 한자권 학습자들의 한자어 어휘 오류 분석과 대조분석학적 연구를 토대로 한 교육방안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연구로는 김중섭(1997), 문금현(2003), 정승혜(1998), 손연자(1984), 오미남(2002), 강현화·김창구(2001), 김지형(2003)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주로 한국어교육에서 한자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뉴스, 신문, 학교 알림문 등 일상생활 속에 들어 있는 문자에 대한 이해력을 증가시켜 최소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한자는 교수해야 한다. 한자는 동양의 공용문자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문자이다. 한자를 익히면 중국, 일본 등의 문자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 한자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우리나라의 실정상 고급학문단계로 넘어갈 때 한자를 익히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한자는 조어력, 축약력이 뛰어나고,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한자어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휘력 확장 및 학문적, 전문적 수준의 어휘를 습득’하는 데에 있다. 한국어 중급 단계부터는 어느 정도 한국어의 기본문형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기본문형에 적용할 ‘어휘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급을 포함한 그 이상의 단계에서 한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한자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는 중급 이상에서 읽기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논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학문 목적, 전문 직업 목적 등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및

---

5) 김정남, 「한국어교육에서 한자교육의 위상과 방향」, 『어문연구』33권 3호, 2005. 400쪽.

한자 목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sup>6)</sup> 한국어를 배우는 비한자문화권의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어에 조금 익숙해지면 신문, 잡지, TV, 길거리 간판 등을 통해서 한자를 주로 접하게 된다. 이 때 비한자문화권의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자는 배우기 어렵다는 두려움과 배워야한다는 필요성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특히 초급 단계에서 벗어나 중급 고급단계에 접어든 학습자의 경우 한자학습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한다.

손연자(1984)는 비한자권 학습자에 대하여 중·고등학생용 교육용 기초 한자를 이용하여 한자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90년대에는 한국어학습자용 한자 선정 및 교수법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다. 중국과 일본에서 온 한자권 학습자들이 많아지면서 한자권과 비한자권 학습자를 분리하여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2000년 이후에는 기초용 한자어 및 학문용 한자 선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이용한 한자 교수법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 시기에는 교육용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교육용 한자를 외국인에게 교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언어교육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교재를 분석한 말뭉치를 사용한다거나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및 한자를 선정하려는 연구가 많아졌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하여 대조언어학적 내용이나 오류분석을 이용하여 한자어 교육을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효율적인 한자교육을 위해서는 한자권과 비한자권 학습자를 나누어 교육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한자문화권 학습자의 경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내용일 때 한자어를 제시하면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다. 한자를 함께 제시한 경우, 한자권 학습자는 자기 모국어와 한국어를 연관지어 학습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한국어 어휘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학습자에게는 새로운 한국어 어휘를 제시할 때 그 어휘가 한자어인 경우, 한자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니까 한자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고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한자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sup>7)</sup> 특히 대학전공 수업을 할 때, 어려운

6) 이영희,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6-8쪽 내용 요약.

7) 김정남, 「한국어교육에서 한자교육의 위상과 방향」, 『어문연구』 33권 3호, 2005. 420쪽.

개념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인 경우 직접 한자를 제시함으로써 외국인학습자(특히 중국인 학습자)가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한자를 이용한 교수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한국한자어는 기본적으로 중국한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한자를 사용하면서 어느 것은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일본에서 온 것도 있고, 현대문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들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돈(查頓), 시택(嫗宅), 영감(令監), 서방(書房), 도령(道令) 등은 한국한자어로서, 한자학습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온 한자어는 대부분 중국고전에서 나온 용어, 불교 같은 종교용어, 백화(白話)에서 온 용어들이다. 천지(天地), 중심(中心), 생명(生命), 화두(話頭), 공부(工夫), 자유(自由), 용이(容易) 등이 그런 예이다. 일본한자어는 신문물과 함께 들어왔다. 철학(哲學), 심리학(心理學)과 같은 학술용어와 출입구(出入口), 엽서(葉書) 같은 용어가 그런 예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언약(言約)이 약속(約束)으로, 생산(生産)이 출산(出產)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많은 고유어와 한국한자어들이 일본식 한자어로 바뀌게 되었다. 다양한 한자어들 가운데 일본어권·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글자가 가진 의미의 차이이다.

한자권 학습자에게 한자 지식이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의미 문제일 것이다. 한자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지식보다 동일한 구성의 한자어가 자기 모국어에도 있고 한국어에도 있으나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것들을 선별하여 대조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자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한자 요소들의 의미는 같으나 한자어의 의미는 달라진 이른바 同形·同素·異義語들을 선별하여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전자사전이 매우 발달하여 수업시간에 사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 이들에게는 비록 알고 있는 한자라 하더라도 사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실제 한국어 담화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을 위한 한자교육의 출발은 어떤 글자를 가르칠 것이냐를 정하여야 한다. 교육용 기본한자의 선정은 현재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한국한자어를 교육하던 초기에는 한국학생들을 위한 중·고등학생용 기초한자를 교육의 도구로 삼았다. 초급 학습자의 어휘력 확장을 위한 교육용 한자어 선정 기

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개별 한자의 뜻과 한자어의 뜻이 일치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한자어여야 한다.
- ②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의 조어력이 높아야 한다.
- ③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어여야 한다.
- ④ 사용 범위가 넓은 한자어여 한다.<sup>8)</sup>

요컨대 교육용 기초한자는 효용성이 높아야 하고, 활용가능성이 많아야 한다. 현재는 이러한 기준을 활용하여 한국어교재에서 많이 쓰이는 한자어를 교육용한자로 활용하고 있다. 한자교육에서 한자에 관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점은 여전히 논란중이다. 단순한 단어교육 수준에 머물렀던 한자교육은 최근 한자를 활용한 문화교육과, 고등학문교육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배규범(2000), 순천향대학교(2008), 김선정(2007) 같은 교재는 한자어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재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대상의 신분이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주민에서 유학생 연구원 등으로 신분이 변한 점을 생각하면 실제 ‘생활한국어’보다 학술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한자 지식의 필요성이 더 증가한다. 학술적인 용도로 제작되는 많은 교재들에서, 주제를 정의하는 개념어들은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상은 한자어인 경우가 많다. 한글로만 쓰여 있는 경우보다는 한자가 같이 표기되어 있다면 그 의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 자체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에 긴요한 정도였던 데에 반해 현재는 학문적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은 상황이므로, 학술적 목적의 한국어 학습에서는 한자 자체에 대한 읽기, 쓰기를 떠나서 주요 학술용어와 개념어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한자의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문제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낯선 한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육대상의 선정문제에 있어서 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라 교육대

---

8) 오수진,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교육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1-63쪽.

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한자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한자권과 비한자권 학습자를 나누어 교육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교육대상이 성인학습자라는 점이다. 현재 한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선정되는 한자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대상 성인이기보다는 한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 한국어 교재를 바탕으로 살펴본 한자어의 경우도 성인학습자라는 조건을 간과한 경우가 많다.<sup>9)</sup> 성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초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한자를 교육하는 방식은 너무 유치하고 쉽다는 느낌을 갖게 하며, 문맥 속에서의 쓰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자 한 글자 떼어서 학습시킬 경우에는 매우 지루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대부분 한국어 교재에 사용되는 한자어들은 생활한자어 혹은 기본한자어에 해당한다. 즉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들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서류작성이나 길거리 간판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자어라는 특징이 있다. 물론 초급 학습자의 경우 초급교재 속에 제시되는 한자어에 대해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 초급자를 위한 한자어는 개념어보다는 구체적인 사물을 지시하는 생활한자어가 적당하다. 그리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수법은 일단 한자어에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다. 한자만 따로 제시하기 보다는 ‘한글(漢字)’형식의 한자병기가 좋다. 한국어의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현대의 외래어까지 매우 다양하다. 한자어는 그 자체로도 존재하지만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등과 다양한 형태로 결합한다. 이 때 기본이 되는 글자를 안다면 결합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중급·고급 학습자의 경우, 한자문화권과 비한자문화권을 구분해야 한다. 한자문화권 학습자의 경우 한국학생들에게 한자 학습시키는 것과 동일한 과정으로 학습활동을 하여도 매우 학습효과가 크다. 이들은 모국어에서 이미 한자를 익혔기 때문에 한자 단어, 사자성어, 한자 숙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자 교육을 할 수 있다. 다만 모국어의 한자가 간섭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 비슷한 한자나 한자어의 경우 대조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한국한자와 중국한자의 간섭현상을 방지하고,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를 익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래동화나 우화, 신

9) 김종섭,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교육연구」, 어문논문 104, 110쪽.

화, 전설 같은 초급용 독서자료, 신문, 잡지, 중국 일본 등의 고전작품 번역을 활용한 중급자료, 대학교재의 내용을 활용한 고급자료를 기반으로 한 독서기법을 통한 한자 교수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3. 독서지도를 통한 한자교수법의 예

하나의 어휘를 익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10회에서 20회 정도 어휘를 익히고 직접 그 어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무의미한 상황에서의 기계적 반복이 아니라 유의미한 상황에서 동일 혹은 유사 어휘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쓰인 글들은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전래동화, 우화, 신화, 전설 등은 쉬운 용어와 고유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초급용 교재로 적당하다. 세상의 변화상과 흐름을 표현하는 신문, 잡지 기사와, 중국이나 일본 고전작품의 한국어 번역본은 성인학습자의 스키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급학습 교재로는 논설문, 인문철학 등을 다룬 대학 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전래동화의 언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담화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기와 듣기가 쉽다. 아동에게도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어와 이야기 구조가 반복적이다. 사용되는 어휘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초급사용자들이 일상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문장은 짧은 데 비해 문법 수준의 난이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 2) 아동·성인 모두에게 흥미로운 주제뿐 아니라 어느 정도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담고 있다. 전래동화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희망과 꿈과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배반, 복수, 질투심, 교만, 욕심, 자비, 용서 등과 같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
- 3) 문화 요소는 언어 교육에 효과적이다. 다중문화적 논점에서 교육적 관심과 일치한다. 학습자들을 민속문학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면 문화적인 지식의 공백을 메우고, 다양한 특유 관용어법과 수사법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자국 문화권의 이야기로 쓰기, 말하기 활동을 할 때는 학습자가 좋아하

는 문화와 이야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고르도록 해야 한다.

- 4) 통합언어 지도에 적절하다. 전래동화는 모든 언어기술에 기본인 어휘력을 확장시키고 복습하는 데 독보적이다. 또한 문법적 요점을 가르치고 강화하는 수많은 방법이 전래동화가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여러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인지적 전략개발에도 유용하다.<sup>10)</sup>

전래동화나 우화, 설화, 전설 등은 여러 나라에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퍼져 있다. 또한 같은 어휘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 주고, 그 쓰임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해준다. 다음 예문을 보자.

옛날에 가난한 **석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는 산에 가서 돌을 다듬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석공**은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공**은 어느 **부자**의 집 대문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늘에 앉아 하인들의 음식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 **부자**는 나보다 위대 하구나.” 가난한 석공은 한숨지었습니다.

“내가 만일 **부자**라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산신령**이 이 말을 듣고는 **석공**의 **소원**을 들어 주었습니다. 곧 바로 **석공**은 멋진 집의 정원에 앉아 하인들의 음식 시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할거야.”라고 석공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부자**가 된 **석공**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왕**의 **궁전**을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신하**들이 바쁘게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왕**의 **궁전**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습니다.

“저 **왕**은 나보다 위대하구나.” 그는 한숨지었습니다.

“내가 만일 **왕**이라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산신령**이 이 말을 듣고는 **석공**의 **소원**을 들어 주었습니다. 곧 바로 **석공**은 커다란 궁전의 왕좌에 앉아 신하들을 호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할거야.”라고 **석공**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가 바깥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햇볕이 따갑게 내려 쬐고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안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락>

10) Eric K. Taylor, 이희숙 역, 『스토리텔링, 이야기활동 전래동화와 언어교육』, 한국문화사, 2007. 24-25쪽.

수업을 한 시간 진행할 경우에 초급자에게 가르치기 적당한 한자 수는 10여 자 내외로 알려져 있다. 위의 이야기에는 ‘석공(石工), 소원(所願), 행복(幸福), 부자(富者), 하인(下人), 왕(王), 궁전(宮殿), 신하(臣下), 산신령(山神靈)’이라는 어휘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야기 구조가 반복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이야기 구성방식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휘의 습득 및 이야기 구조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만든다. 결국 학습자는 반복되는 이야기 구조 속에 반복되는 으로 전대하면서 및 이야기그 어휘의 성방와회의 새 전익히게 된다. 최주열, 이홍매<sup>11)</sup>이라는 성인대상 외국인에게 한자수업을 할 경우 흥방식은유발해야 하여금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수업을 유도해야 하며, 개된다수업을 해야 하여금 장기간 기억할 에 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주열, 이홍매이라는 주장은 전래동화나 우화 같은 자료들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중급 수준의 자료는 반복되는 어휘의 수는 줄이고 좀 더 다양한 단어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를 제시하여 학습효과를 높여야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예문은 <사기, 회음후열전>에 나오는 내용이다.

<다다익선>

옛날 중국의 유방은 여러 나라를 통일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유방은 훌륭한 장군이 필요했다. 그때 한 신하가 한신을 데리고 와서 유방에게 말했다. “만약 왕께서 여러 나라를 통일하려고 한다면 한신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방은 한신을 장군으로 임명했고 한신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 한신 덕분에 유방은 여러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게 되었다. 통일에 공이 많았던 한신은 많은 상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나라는 안정되었지만 유방은 한신의 힘이 커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한신을 낮은 관리로 임명하고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항상 감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방은 여러 장군들의 능력에 대해 한신과 이야기를 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

“왕께서는 10만 명쯤 지휘할 수 있습니다.”

11) 최주열, 「한자교육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말교육』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4. 145쪽.  
이홍매, 「중국어인 한국어 학습자의 신문을 통한 한자어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2004. 198쪽.

“그럼 그대는 몇 명이나 지휘할 수 있는가?”

“다다익선입니다. 저는 병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웃었다.

그대가 나보다 훌륭한 장군인데 왜 내 밑에 있는가?”

“왕께서는 병사의 장군이 아니라 장군의 장군이기 때문입니다.”<sup>12)</sup>

위의 예문에서는 ‘유방(劉邦), 한신(韓信), 장군(將軍), 임명(任命), 전쟁(戰爭), 공(功), 통일(統一), 상(賞), 지위(地位), 관리(官吏), 성(城), 감시(監視), 능력(能力), 만(萬), 명(名), 다다익선(多多益善), 병사(兵史), 지휘(指揮)’와 같은 용어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 어휘들은 유방과 한신의 화제를 중심으로 전쟁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다. 용어들이 반복되어 제시된다. 이처럼 ‘전쟁-장군-통일-공-성-명-병사-지휘’ 식의 어휘 사슬을 통해 유사 의미 혹은 동일 계열 한자로 묶어 한자의 의미를 익히기가 더 쉬울 뿐 아니라 의미의 확장도 용이하다.

한자문화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자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빈번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비슷한 용어들이 같이 묶여서 반복되어 사용됨으로써, 잘못된 한자사용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예문으로는 신문 사설, 잡지, 시사지, 여행기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어학연수 과정을 마치면 곧바로 대학으로 편입학할길 원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수강신청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어휘 및 대학수업에 필요한 수준의 언어를 익혀야만 한다. 대학교재와 같은 비교적 어려운 자료를 읽어나기 위해서는 약 10,000개의 어족을 알아야 한다.<sup>13)</sup> 이처럼 많은 어휘를 영어 어휘 외우기처럼 단순제시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독서를 통한 어휘학습은 읽기기술과 발음교육 및 새로운 어휘 습득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학습법이다. 설령 모르는 단어의 경우에도 문맥에서 뜻을 짐작할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어휘에 대해

12) 김선정 외, 『살아 있는 한국어 -한자성어』, Korea Language Plus, 2007, 203쪽.

13) 이미경, 『읽기 텍스트상의 한자 병기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우연적 한자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8, 20쪽.

서는 더욱 폭넓은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대학교재는 내용적 측면에서 매우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사적 특징, 격식, 주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주제 및 내용과 관련한 어휘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순한 어휘뿐만 아니라 특정 학문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전문어휘가 뒤섞여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다양한 전공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학문 분야의 어휘[사용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학문 분야에 두루 사용가능한 어휘를 중심으로 예문을 선정하여 교수하는 것이 좋다.

**내적기준**에 따른 **비판**은 텍스트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독서절차**이다. 글을 읽을 때에는 먼저 **저자의 논리**를 따라가며 읽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것이 곧 **수동적인 독서태도**를 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가면서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모든 **저자**가 **자신**의 글에 대한 **통제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또한 **통제력**이 뛰어난 **저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순간적인 흥분**이나 **편견, 선입견**, 지나친 자기주장 등으로 인하여 **논리의 일관성**이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에는 **저자의 주제**의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러한 **주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않은지를 **비판**하면서 읽는 **성숙한 독서태도**가 **필요**하다.<sup>14)</sup>

위에 제시한 예문은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양교재에 실린 것이다. 모두 49개의 한자어휘가 사용되었고, 주제는 독서기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독서, 비판, 의미, 논리, 주제, 저자와 같은 핵심어를 중심으로, 독서절차, 독서태도, 통제력, 성숙, 일관성 같은 보조어휘들이 밀집해 있다. 앞의 초·중급에서 제시한 예문에서는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고급수준이라 할 수 있는 대학교재에 나타난 한자어들은 반복되는 경향이 현저히 줄어들고,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어휘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급이 10여 개 미만이었다면, 고급 수준의 예문에서는 초·중급 수준의 어휘를

14) 장미영 외, 『멀티미디어 시대의 전략적 글 읽기』, 글누림, 2006, 141쪽.

포함하여 매번 새로운 어휘들을 단위 묶음으로 제시하여 어휘 습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인 학습자들이 학업에 지속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4. 맺음말

본고는 한국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한자를 어떻게 교육시키면 효과적 일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갈 때 부각되기 시작하는 한자어는 많은 학습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자들은 그동안 한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한자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초기에는 한국학생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한자를 선정하였다.

효율적으로 외국인에게 한국한자를 가르칠 때는 한자권과 비한자권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한자권 학습자의 경우는 모국어로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 대만과 일본인들의 경우, 한국한자와 간섭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고 외국인에게 적절한 한국한자어의 사용례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독서지도를 통한 한자교육이 가장 적절하다.

먼저, 초급용으로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나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우화, 전설 등을 활용하면 좋다. 전래동화, 우화, 전설 등으로 이루어진 예문은 고유어와 기초한자어가 적절히 반복사용되면서 사용례를 자연스럽게 익혀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만든다. 둘째, 중급수준의 한국어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중국고전의 한국어 번역본이나, 한국의 시사문제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루어진 예문을 읽힌다. 중국고전을 읽는 경우, 한국한자음과 중국한자음 및 한국한자의 쓰임과 중국한자의 쓰임을 비교하여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사문제는 한국의 현상황을 읽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고급수준의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양교재의 예문을 제시한다. 고급수준 학습자들은 대부분 유학생들로 언어연수과정을 마치면 대학에 편입학하기를 원한다. 이들의 경우,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어휘를 학습시키기는 어렵다. 때문에 대학사회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교양교재의 예문을 사용하여 한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어휘군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 〈참고문헌〉

- 강현화, 「한국어교육용 기초 한자어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어교육』, 12권 2화, 2001.
- 김수희, 「중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교육연구: 한자어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 김정남,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교육의 위상과 방향」, 『어문연구』33권, 2005.
- 김중섭,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 교육연구」, 『어문연구』 95호,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2001.
- 김지형, 「한국어교육에서의 한자교수법」, 『11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2001.
- 김지형,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기본한자의 선정」, 『어문연구』 31권 2호, 2003.
- 박영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월인, 2001.
- 배규범, 『한자로 읽는 한국문화』, 보고서, 2000.
- 배원룡, 「효과적인 어린이 한자 지도법」, 『국어교육』 7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0.
- 손연자, 「비한문 문화권 외국인에 대한 한자교육방법론 소고」, 『말』 9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1984.
- 순천향대학교 편,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1, 2』, 보고서, 2008.
- 송영일, 『이야기 한문과 한자성어』, 박이정, 2008.
- 오미남, 「비한자권 외국인을 위한 한자교육」, 12차 국제학술대회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
- 오수진,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교육연구』, 경희대 석사, 2005.
- 이미경, 「읽기 텍스트상의 한자병기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우연적 한자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 2008.
- 이영희,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연구』, 숙명여대 박사, 2008.
- 이흥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신문을 통한 한자어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 전미순, 『문화속 한국어1, 2』, Korea Language Plus, 2008.

- 김선정 외, 『살아있는 한국어』, Korea Language Plus, 2007.
- 정석원, 『문화가 흐르는 한자』, 동아일보사, 2001.
- 정승혜, 「외국인을 위한 국어한자교육 연구」, 이화여대 한국학과 석사논문, 1998.
- 최길용, 『한자와 한문』, 두양사, 2003.
- 최주열, 『한자교육방법에 대한 고찰-외국인에 대한 한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말교육』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4.
- 황 중,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연구: 부정접두 한자반의어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07.
- 전통문화연구회, 『전통문화회보』, 1998
- Eric K. Taylor, 이희숙 역, 『스토리텔링, 이야기활동 전래동화와 언어교육』, 한국문화사.

【Abstracts】

## A Study of Korea's Chinese character Instruction for a foreigner

Jeong, Hun

This essay deal with a teaching to read and writing a word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for Korean as Foreign Language(KFL) learner. As KFL learners rose to high grade from an intermediate grade, they were burdened with a Chinese characters. Toward the solution this problem, Korean teachers make a need to study a Chinese characters and to teach an effective training. An early stage, they choose and taught the elementary Chinese characters.

The read guidances were very effective in order to train Korean-Chinese characters for KFL learners. The first, fairy tale, fable and legend are appropriate for a primary grade. An example sentence of fairy tale, fable and legend consist of a native tongue and elementary Chinese characters. Those have a repeated practice, therefore KFL learners have a long-term memory to Korean-Chinese characters. The Second, a current question in Korea are appropriate for an intermediate grade. KFL learners have a schema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in translation and study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Korea. The third, an example sentence come from the subjects for general education are appropriate for high grade. Mostly a foreign student, they want to entry the Korean university. Due to satisfy

their wants, we afford various data with wide latitude to them.

keywords : Korean as Foreign Language(KFL) learner, read guidances, elementary Chinese characters, a schema.

이 논문은 2009년 7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8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